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3.70원 상승한 1,353.70원에 마감

16일 환율은 전일대비 3.70원 상승한 1,353.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50원 상승한 1,352.50원에 개장했다. 간밤 달러인덱스 상승과 뉴욕증시 하락 등을 반영하여 상승 출발한 환율은 중동발 리스크 오프 영향에 1,350원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1,350원대 중반에서 횡보하다가 수출업체 네고 및 외환당국의 추정 물량 등이 유입되면서 상승 폭은 제한되며 1,353.7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4.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04.84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352.50	1355.30	1350.50	1353.70	1353.8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02.39	906.83	902.08	905.37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18.71	1430.05	1418.08	1429.46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97	-5.4	-13.31	-28.96
결제환율(수입)	-0.7	-4.36	-11.61	-25.19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1,34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2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53.70) 대비 5.45원 하락한 1,346.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 회복 및 달러 약세 영향에 하락이 예상된다. 블링켄 미국 국무부 장관은 중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들어갔고 미국이 이란에게 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등 중동 지정학 리스크 확대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면서 시장은 기업실적 낙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에 밤사이 성장주에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는 점이 확인되면서 금일 국내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 순매도가 완화된고 순매수 전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도 이와 같은 중동 지정학 리스크 억제 노력과 기업 실적 기대를 반영한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 하락하며 간밤 뉴욕장 마감 무렵 달러인덱스는 106.200

으로 전장보다 0.44%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 또한 금일 환율 하락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를 비롯한 저가매수 유입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40.50 ~ 1350.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100.4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45원 ↓
	■ 美 다우지수 : 33984.54, +314.25p(+0.9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1.0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509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